

## 예 시 답 안 (인문·체능계)

### [논제 1]

죽음은 현세와 내세가 구분되는 시점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현재의 삶과 미지의 내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 죽음을 통하여 이 둘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은 육체의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인간이 마침내 육체로부터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얻고 참된 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 [나]는 인간은 기계와 같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면 모든 것들이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죽음은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가]와 [나]는 상이한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인간은 죽음을 통해 육체에 갇혀 이르지 못했던,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반면, 제시문 [나]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이전의 현세만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중한 기회인데, 필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죽음의 특성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592자)

### [논제 2]

제시문 [바]의 시적 화자는 죽음을 귀천(歸天), 즉 본원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로 인식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죽음은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달관에 이르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하늘에서 잠시 지상으로 내려온 여행에 불과하며,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귀향인 셈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는 현실적 삶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의 목숨까지 돈으로 환산되는 각박한 자본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죽음은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회사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경영자들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의 목숨 값(죽음)이 20만 달러로 환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 현실적 삶의 아름다움을 성찰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과, 죽음에까지 값을 매겨 이윤 추구를 궁극적 기준으로 삼는 제시문 [다]의 관점은 선명하게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죽음(소신공양)을 통해 세속적 삶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죽음은 인간적 삶의 고통을 끌어안는 주체적 결단이자, 인간 존재의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초월적 행위이다. 제시문 [바]의 시적 화자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세속적 삶을 체념·달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제시문 [라]의 인물은 자기희생을 통해 인간 삶의 존재론적 고뇌와 슬픔을 구원하려는 실천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시문 [마]는 삶에 절망하여 마침내 자살하고 마는 주변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두 젊은이는 타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루될 것을 염려해서 서둘러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진 타인의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한 화자들의 모습은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실적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소통과 공감이 부재한 채 파편화된 우리시대 자화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1,134자)